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위해 전국 25개 사찰에 배포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

# ‘전통’과 ‘편의’ 두 마리 토끼 못 잡나

최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갑)가 공동 개발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이 일선 사찰 템플스테이 발우공양서 스토리텔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물이 다소 무거워 편의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도 제기됐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에 걸쳐 개발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을 지난달 전국 25개 사찰에 배포,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운영기물은 천수수관 2종·더도리그릇(국통 및 밥통)·퇴수통 등 5종이다. 이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사찰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기물을 통일해 이질감을 줄이고, 전통적인 공양구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새로 개발한 운영기물은 통도사·송광사 등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유물을 본래 제작했다. 스테인리스 재질에 티타늄코팅을 한 기물은 밝은 금색을

##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 장단점 비례 스토리텔링에 ‘효과’ VS “무거워 불편”

띠고 있다. 또 발우공양 시 천정에 새겨진 천수다라니가 천수수관에 비해 물을 정화한다는 전통적 의미를 살려 손잡이를 양쪽에 배치했다.

하지만 본지 조사결과, 운영기물을 직접 사용해본 템플스테이 실무자들 반응은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에 효과가 있고, 통일된 모습이 보기 좋지만 운영기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게로 인해 불편하다는 것이다.

경상도 A사찰 실무자는 “직접 발우공양에 사용해보니 장점이 많다. 참가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늘었다”며 “다만 기존 현대식 운영기물에 비해 무거워 불편한 점이 있다. 전통이 가져다 주는 멋과 편의성이 상반돼 단순히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화도 B사찰 실무자는 “분위기도 좋고 멋스럽다. 발우공양의 의미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전통 운영기물에 대한 인식이 낮아 양쪽에 달린 손잡이가 어색하고, 기존 것보다 무겁다 보니 운반할 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에 따르면 새 운영기물은 기존 현대식 운영기물에 비해 2~3배 무겁다. 물론 과거 사찰에서 사용하던 놋쇠 운영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만 이미 익숙해진 현대식 운영기물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불편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새 운영기물이 무거운 이유는 스테인리스를 2중으로 쓰고, 하단에 굵은 받침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열전도율을 낮춰 음식이 빨리 식는 것을 막고, 겉면이 뜨겁지 않아 화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무게에 대한 고민은 문화사업단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전통성과 편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무게를 낮추기 위해 스테인리스 두께를 줄여봤지만 제작과정에서 바깥 면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스테인리스를 한 겹만 쓰게 되면 기존 장점이 퇴색한다. 결국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시범운영 사찰 의견을 취합하면서 금형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모델이 전통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절충한 것이지만 개선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서 “템플스테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우공양 운영기물이 갖는 전통성을 잘 알리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 “쓰시마 금동보살상을 부석사 품으로”

서산 부석사, 4월 19일 인도청구소송 제기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로 돌려놓기 위한 법적 소송이 본격화된다.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는 4월 19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봉안하기 위한 인도청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석사와 부석사불상보안위는 “2014년 대전지방법검찰청이 문화재청에 의뢰해 조사한 ‘불상재감정 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대다수가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을 제기했다”면서 “일본 학계의 보고에도 ‘약탈 정황’을 발표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마도 관음사가 취득하였을 가능

성이 희박하다”고 소송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부석사는 법률적인 조치와 별개로 한일 불교계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부석사 봉안 타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상근 봉안위 집행위원장(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은 “최근 일본 언론이 가짜부기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해 부석사가 봉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마치 포기한 것처럼 오인,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접수하게 됐다. 그래도 최선의 방안을 한일 불교계의 대승적 이해와 협력을 통한 부석사로의 봉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36회 장애인의 날... 반인권·차별 여전”

사회노동위, 4월 20일 성명서 발표 “취업·노동 열악”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 이하 사회노동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을 비판했다.

먼저 사회노동위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취업 및 노동 현장에 대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의 벽은 매우 높다. 그마저도 저임금이라는 이중구조에 갇혀 정상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6.8%로, 남성장애인의 참가율 66.2%에 훨씬 못 미치는 지경”이라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회노동위는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62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223만 원)의 73%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들 중 절대 빈곤층이 유독 많은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5%로 명시하고 있지만, 각각 2.5%와 2.2%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단호하게 시정 조치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끌어올릴 방법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가치 논한다

등재추진위, 4월 29일 학술대회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지승)가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3번째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4월 2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이해은(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교수의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전통산사의 진정성’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류성룡 계명대 교수의 ‘전통산사의 공간배치’ △이승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의 ‘전통산사의 자연환경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장의 ‘한국전통산사 보존관리 현황과 과제’ △김경미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책임연구원의

‘전통산사의 유형유산’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의 ‘전통산사 무형유산의 가치와 특성’ 등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으로서 의의와 관리 및 자연·기록·유형·무형유산 가치에 대한 6명의 발제가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을 좌장으로 이상현 건국대 교수,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 한필원 한남대 교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명법 스님 등이 참여한다.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내학술회의에서는 등재대상 7개 산사의 자연·기록·유형·무형유산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보은 범주사, 광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 불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은 2015년 12월 28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아기도 엄마도 편하게 사찰로

서울 조계사 경내에 아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1일 관음전 앞에서 수유실 현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수유실은 두평정도 공간에 간이소파와 수유쿠션, 기저귀, 세면대, 물티슈 등이 비치돼 있다. 조계사 신도 뿐 아니라 아기 엄마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사진은 현판식서 풍선을 날리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가운데)과 조계사 대중들의 모습.

서울 조계사 경내에 아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1일 관음전 앞에서 수유실 현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수유실은 두평정도 공간에 간이소파와 수유쿠션, 기저귀, 세면대, 물티슈 등이 비치돼 있다. 조계사 신도 뿐 아니라 아기 엄마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사진은 현판식서 풍선을 날리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가운데)과 조계사 대중들의 모습.

노덕현 기자

##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 증축 가능해져

정부 3월 29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증축 가능한 도시공원 범위가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됐다. 규제 해지로 향후 전통사찰 불사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4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증축이 가능한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에 한정됐다. 도시공원 내 모든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공원 관리청과 협의한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건폐율, 용적율 등 타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 330㎡ 이내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한 66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조계종은 “그동안 증축규제를 받고 있던 전통사찰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국사찰이 갖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국가기념문화제 제122호 •

www.연등회.kr

#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Lotus Lantern Festival

## 2016. 5. 6(금) - 8(일)

- 연 등 행 렬 | 5월 7일(토)  
오후 7:00 ~ 9:30 중로거리(동대문→조계사)
- 전통문화마당 | 5월 8일(일)  
낮 12:00 ~ 오후 7:00 조계사 앞길